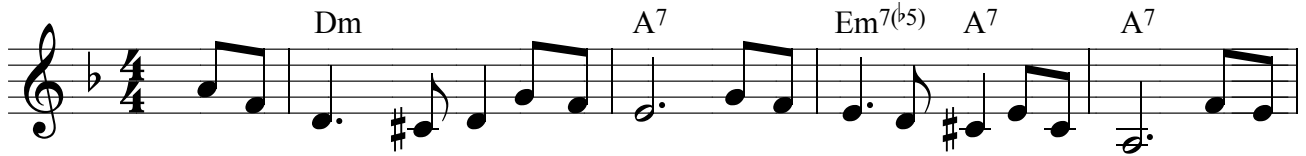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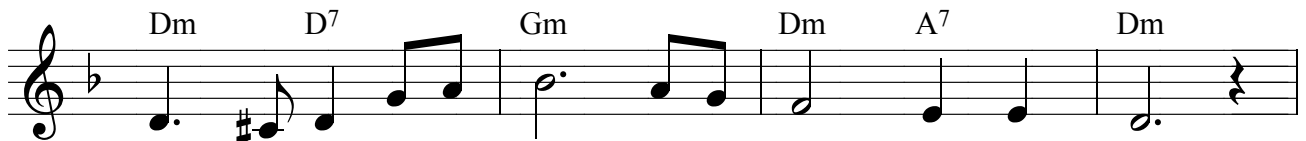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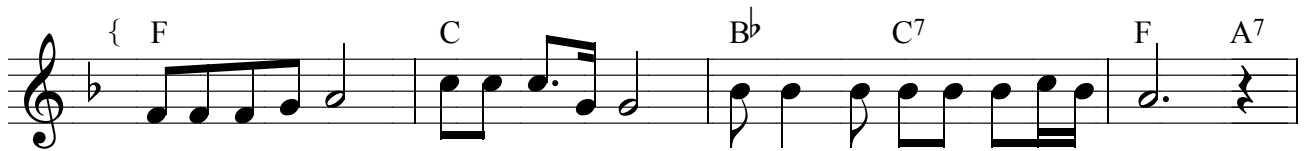
채수련 작사
임임택 작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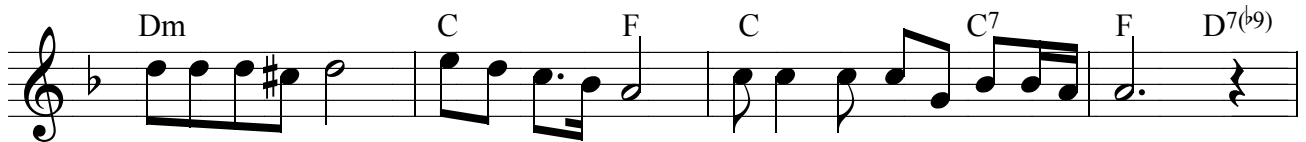
1.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피값
2.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아들



으 로 널 샀으 니 너는 내 것 이 라
이 라 인 쳤으 니 너는 내 것 이 라



물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리 라
어둔사막길 다닐지라도 주가 동행해 주시리 라



불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않으리 라
모진비바람 불어닥쳐도 나를 헤치지 못하리 라



즐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불꽃같은 눈동자 로
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사 - 랑의 눈동자 로



언제나 나를 지켜 주시 리
언제나 나를 지켜 주시 리